

文獻資料를 통해 본 고대·고려시대의 名將

전 호 수*

1. 머리말
2. 古代의 名將 구성과 그 특징
3. 高麗時代의 名將 구성과 그 특징
4. 맺음말

1. 머리말

인류의 역사는 보다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향한 진보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그 성과가 전쟁과 파괴의 과정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아이러니한 진실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 역사에서만 보더라도 고대국가의 성립·발전과정에서 수많은 약탈과 정복을 통해 성장의 동력을 마련한 측면이 적지 않았고, 반면에 임진왜란에서와 같이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회피한 경우에는 혹독한 시련을 겪기도 했다. 그 결과 건국 시조라든가 국가 중흥의 인물들은 흔히 전쟁 영웅인 경우가 허다함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문관

수 있으며, 오히려 일찌기 ‘적국이나 외침이 없는 나라가 도리어 망한다’¹⁾라고 하는 역설적 진리가 갈파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국가의 운영이나 회사의 경영에도 최고의 지침서로 병법서가 한 자리를 차지해온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일이다. 또한 인생 수양의 고전 목록에서도 병법서는 앞자리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사회정치적 위기의식이 고조될 때면 전쟁영웅이라든가 병법서에 대한 관심은 가히 폭발적으로 증대되었다. 우리의 최근세사에서는 제국주의적 침략이 고조되던 근대 초기에 그러했고, IMF 경제위조를 경험하면서 위기극복의 리더십을 전쟁 영웅에서 찾아보려는 시도가 적지 않았다.²⁾ 승전의 名將들이 보여준 위기극복의 리더십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탐색해보고자 하는 시대의식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전쟁 영웅 내지 명장의 선정 원칙 내지 객관적 기준 등에 대한 고민은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 결과 오히려 역사적 사실과는 동떨어진 인물 현상이나 역사 해석이 이루어지기도 하면서 학문적·대중적 인식을 호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음이 사실이기도 하다.³⁾ 이에 따라 필자는 현전하는 고문헌자료, 즉 역대의 名將傳 또는 名將錄 상의 수록 인물을 비교·분석하는 역사적 방법론을 통해 조선

1) 『孟子』「告子」下, “出則 無敵國外患者 國恒亡(밖으로는 적국이나 외환이 없다면 그런 나라는 언제나 망한다).”

2) 필자도 소속 기관의 과업으로서 조선시대의 명장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개관 해본 바 있다.

① 졸저, 『한국 군사인물연구 -조선편 I-』, 20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② 졸저, 『한국 군사인물연구 -조선편 II-』, 201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논고가 참조된다.

① 이장희, 「임란중 인물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인물사연구』 창간호, 2004, 한국인물사연구회.

② 졸고, 「임란순국 이영남 장군 갈장류의 재구성적 고찰」, 『중원문화논총』 11, 2007,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③ 김도형, 「책머리에」, 『서애 류성룡의 학문과 계승』, 2015, 연세대 서애학술연구단.

시대 명장 인식상의 객관성·보편성의 검출 가능성, 다시말해 인물 선정상의 공통된 원칙 내지 기준의 확보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본 바 있다.⁴⁾

본고는 그 후속편으로서 이미 조선시대 명장 분석에서 활용했던 4종의 고문헌, 즉 『海東名將傳』·『大東掌攷』·『典故大方』·『文獻便考』⁵⁾ 등에 수록된 古代·高麗時代 명장의 구성 및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그 바탕 위에서 오늘날 명장 선정의 객관적 근거 자료로서 활용 가능성에 대해 다시금 검토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왕의 조선시대 명장 분석에서 전개했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위 4종의 문헌자료에서 수록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 전체적인 총괄 대비표를 작성한 다음, 그 대비표 상에 나타나는 특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개별 인물의 수록 빈도, 즉 수록 문헌수에 의거한 인물 구성에 대해 살펴보고, 다시 그 수록 빈도에 바탕하여 문헌간 계통성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특히, 문헌간 계통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기왕의 조선시대 명장편에서 추론되었던 黨色別 系統性의 문제도 재확인해보고자 한다.

한편, 기왕의 조선시대 명장편에서는 위 4종의 문헌에 수록된 인물의 공통성에 중점을 두어 논의를 진행했던 것과는 달리, 본고

4) 줄고, 「古文獻을 통해본 朝鮮時代 名將」, 『軍史』 94, 201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 이들 4종의 문헌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해제 및 비교 분석은 ‘줄고, 앞 논문, pp.77~98 참조. 본래는 『海東名臣錄』을 포함하여 5종의 문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나, 『해동명신록』이 조선시대 인물전에 해당하므로 본고에서는 자연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기왕의 조선시대 명장 분석에서는 각 문헌의 발간시점에 주목하여 『문헌편고』(1923년, 이장훈 간행)를 『전고대방』(1924년, 강효석 출간)보다 앞서는 자료로 설정했으나, 실제로는 『전고대방』의 경우 그 출간 시기가 늦었을 뿐 실상은 이미 1910년대 초반에 편찬되어 舊知識이나 老學者들에게는 상식적 참고서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문헌편고』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저작으로 설정했다. 즉, 본고에서는 기왕의 『문헌편고』·『전고대방』의 순서가 아니라, 『전고대방』·『문헌편고』의 순서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필자의 ‘앞 논문’을 이용하게 될 경우,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출처를 밝히지 않기로 한다.

에서는 그 차별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미 조선시대 명장 분석에서 확인되었듯이 문헌별 인물 선정의 공통성·동일성 등 수록 빈도의 다소와 관련해서는 戰功·軍功의 대소 및 戰爭·戰鬪의 규모와 밀접한 연관성이 기대되는 일반적인 예상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점, 무엇보다도 각각의 명장전 또는 명장록⁶⁾도 기본적으로 하나의 시대의식의 산물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헌별 수록 인물의 편차는 그 공통성에 주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차별성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보다 유의미한 분석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기왕의 조선시대 명장 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장 내지 전쟁 영웅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 서술에서 주요 주제의 하나였던 만큼, 수많은 전기물과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있다.⁷⁾ 또한 그 관심과 성과가 진전될수록 새로운 인물이 발굴되고 다양하고 심화된 논의도 전개될 것이다. 그러나 개별 인물 중심의 분산적인 논의를 포괄하는 방식, 특히, 통사적 명장전 내지 명장록에 바탕하여 그 인물 선정의 객관성·보편성 여부를 검증하는 논의는 아직 진행된 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⁸⁾ 따라서 기왕의 조선시대의 명장에 대한 문헌비교적 해명의 후속편으로 고대·고려시대의 명장에 대한 논의도 본고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6) ‘명장전’과 ‘명장록’의 구분은 개별 인물의 전기를 모아놓은 경우에는 ‘명장전’, 단지 인물 명단만을 수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장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해동명장전』은 ‘명장전’에 해당되고, 『대동장고』·『전고대방』·『문헌편고』는 ‘명장록’에 해당한다(출고, 앞 논문, p.75 주 6) 참조).

7) 軍을 중심으로 편찬된 명장전으로는 다음의 자료가 참조된다.

- ① 국방부 정훈국, 『韓國歷代名將傳』, 1955, 국방부.
- ② 해군본부 정훈감실, 『水軍名將傳』, 1962, 해군본부.
- ③ 해군본부 정훈감실, 『海戰名將傳』, 1976, 해군본부.
- ④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한국의 명장』, 1978, 육군본부.

8) 전쟁기념관이 2012년 6월에 개최한 ‘전쟁기념관의 호국인물 선정과 운영에 대한 종합적 고찰’도 이러한 난맥상에 대한 고민의 산물로 이해된다.

일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고와 같이 문헌비교적 방법론으로는 하나의 경향성을 알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곧 개별 인물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직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점도 미리 지적해야 할 듯하다. 본고와 같은 논의를 통해서 향후 名將에 대한 분석이든, 또다른 주제의 인물상에 대한 해명이든간에 보다 다각적이고 균형적인 방식에 의거한 고찰에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고자 한다.

2. 古代의 名將 구성과 그 특징

앞서 언급했듯이, 본고에서 古代에 활약한 명장 또는 전쟁 영웅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하면서 분석대상으로 삼게 될 자료는 기왕의 조선시대 명장 분석에서 다룬 바 있는 『해동명장전』·『대동장고』·『전고대방』·『문헌편고』 등 네 종류의 문헌이다. 이들 4종의 문헌에 대한 기본적인 해제는 기왕의 조선시대 명장편에서 다룬 바 있지만, 논리 전개에 필요상 최소한의 서지사항만을 편찬시기가 앞서는 순서로 제시해보면, 다음의 <표 ①>과 같다.

<표 ①> 분석대상 명장전·명장록 기본구성 대비표

문헌명칭 \ 항목구분	편저자	편찬시기	권수구성	인물구성
해동명장전	홍양호	1794년(정조 16)	6권3책	9명
대동장고	홍경모	1821년(순조 21)경	13책(13권)	7명
전고대방	강효석	1910년대	4권1책	13명
문헌편고	이장훈	1923년	1책	13명

앞의 <표 ①>과 같이, 편찬 시기순으로는 洪良浩(1724~1802)가 저술한 『해동명장전』이 1794년(정조 16)으로 가장 앞서고, 다음으로 약 30년 뒤인 1821년(순조 21)경에 『대동장고』가 편찬되었는데, 편저자인 洪敬謨(1774~1851)는 『해동명장전』을 편찬한 홍양호의 직손자이다. 『전고대방』과 『문헌편고』는 각각 1년의 차이를 두고 1924년과 1923년에 간행되었는데, 시기상으로 현대적 간행물에 해당되지만 그 체제 및 내용은 조선후기에 간행된 각종 인물전 또는 인물록의 항목 설정과 동일하므로⁹⁾ 실질적으로는 고문헌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 자료들이다. 편찬자는 각각 당시 언론출판인으로 활동했던 姜敷錫과 李章薰이다. 특히, 강효석은 『전고대방』 뿐만이 아니라 『大東奇聞』과 『東國戰亂史』의 편찬자이기도 하다. 각 문헌의 고대편의 수록 인물은 『해동명장전』이 9명, 『대동장고』가 7명, 『전고대방』과 『문헌편고』는 똑같이 13명이다.

각각의 문헌이 수록하고 있는 인물의 면면을 原典에서 구성하고 있는 편차대로 제시해보면, 『해동명장전』의 경우 ‘金庾信·張保臯·鄭年·沈那·素那·扶芬奴·乙支文德·安市城主·黑齒常之’의 순서로 등재하고 있다. 편차 방식을 살펴보면 각 인물을 수록하기에 앞서 해당 국가명, 즉 신라·고구려·백제의 순서로 왕국명을 밝힌 다음에 개별 인물을 소개하고 있다. 나라별로는 신라가 김유신부터 소나까지 5명, 고구려가 부분노·을지문덕·안시성주(양만춘)¹⁰⁾의

9) 『전고대방』·『문헌편고』 등의 기본적인 체제와 내용은 18세기 후반 이후에는 대체로 정형화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고를 준비할 계획이다.

10) ‘양만춘’을 가리키는데,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에서는 ‘안시성주’라고만 표기했고, 『전고대방』에서는 ‘楊萬春’, 『문헌편고』에서는 ‘梁萬春’으로 표기하여姓의 한자가 다르다. 그런데 『해동명장전』의 본문 서두에서 ‘其名或曰 楊萬春也’라고 한 것에 주목해보면, 본래는 ‘楊萬春’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한편 조선시대에 ‘안시성주 양만춘’이 명장으로 인식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논의로는 다음의 논고 등이 참조된다.

① 김세호, 「연행을 통해 되살아난 安市城과 梁萬春/楊萬春」, 『한문학보』 31,

3명, 백제는 흑치상지 1명뿐이다. 또한 정년과 소나는 각각 장보고와 심나의 부록 인물로 한 항목에서 다루고 있으며, 안시성주 양만춘의 경우에는 ‘안시성주’로만 등재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사항은 백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삼국각축기 또는 삼국통일전쟁기의 인물이 아니라 멸망 이후 唐나라에서 활동한 ‘흑치상지’, 이를테면 遺民 將帥를 대표 명장으로 선정하고 있는 점이다.

다음으로 『대동장고』의 수록 인물을 살펴보면 역시 개별 인물을 등재하기에 앞서 해당 국가명, 즉 신라·고구려·백제의 순으로 국명을 밝힌 다음에 각 인물을 배열하고 있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김유신·장보고·심나·소나·을지문덕·안시성주·흑치상지’ 등 7명으로 앞서 살펴본 『해동명장전』에서 ‘정년과 부분노’가 탈락된 것 외에는 구성 인물이 동일하다. 따라서 기왕의 조선시대 명장 분석에서의 마찬가지로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의 인물 구성은 사실상 동일한 것¹¹⁾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이러한 인물 구성은 미리 언급하자면, 두 문헌 편찬자의 학문성향이나 봉당적 입장이 少論-南人系로 규정될 수 있었던 데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을 듯하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측면에서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의 인물 구성에서도 위와 같은 특성이 확인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먼저 『전고대방』의 수록 인물을 마찬가지로 원전의 순서대로 제시해보면, 역시 먼저 각각의 국가명 아래에 개별 인물을 수록하고

2014, 우리한문학회.

② 남재철, 「안시성주의 성명 ‘양만춘’ 고증(1)」, 『동아시아고대학』 35, 2014, 동아시아고대학회.

③ 김락기, 「17~19세기 고구려 안시성 인식과 ‘成上拜」, 『역사민속학』 42, 2013, 한국역사민속학회.

11) 줄고, 앞 논문, p.90. 참고로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의 조선시대 명장 구성을 살펴보면, 전자가 24명, 후자가 21명인데 후자의 수록 인물은 전자와 동일한 가운데, 전자에서 3명을 제외한 면면으로 구성되었다.

있다. 즉, 신라·고구려·백제의 순서로 ‘김유신·金巖·任强首¹²⁾·居漆夫·丕寧子·金春秋¹³⁾·金伯淨¹⁴⁾·金仁問·을지문덕·溫達·楊萬春·階伯·斯紀’¹⁵⁾ 등 13명을 등재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신라가 김유신부터 김인문까지 8명, 고구려는 ‘을지문덕·온달·양만춘’으로 3명, 그리고 백제가 ‘계백·사기’ 등 2명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런데 『전고대방』의 이러한 인물 구성은 『문헌편고』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즉, 『전고대방』에서는 ‘名將錄’이라는 항목으로 인물 명단을 작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헌편고』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명칭인 ‘海東名將錄’이라는 항목 아래 왕조별로 같은 수의 13명의 인물 명단을 제시하고 있다. 또 그 인물 구성이나 편차 방식도 모두 『전고대방』과 동일함은 물론 개별 인물에 대한 細註 형식의 略傳도 내용이 동일하다. 따라서 『전고대방』과 『문헌편고』는 명장 구성에 관한 사실상 하나의 문헌으로 보아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 까닭은 앞서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의 경우와 같이 학문성향이나 黨色上的 공통성으로 규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를 소론-남인계의 명장전으로 재규정할 수 있었듯이, 『전고대방』과 『문헌편고』도 西人-老論系의 名將錄으로 재확인할 수 있을 듯하다.¹⁶⁾

미리 그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에서는 신라의 명장으로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의 5명보다 많은

12)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에서 모두 잘 알려진 이름인 ‘强首’ 대신에, ‘任强首’로 姓을 밝혀 적고 있다.

13) 신라의 제29대 국왕 ‘太宗武烈王’의 實名이다.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에서 모두 왕명인 ‘태종무열왕’이 아닌 실명인 ‘김춘추’로 표기하고 있다.

14) 신라의 제26대 국왕 ‘眞平王’의 實名이다.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에서 모두 왕호인 ‘진평왕’이 아닌 실명인 ‘김백정’으로 표기하고 있다.

15) 앞선 문헌, 즉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에서 수록된 인물은 한글로, 새로운 인물인 경우에는 한자로 표기했다. 이하, 동일하다.

16) 줄고, 앞 논문, p.97 참조.

8명으로 구성하고 있지만, 국왕인 ‘김춘추와 김백정’, 즉 ‘태종무열왕과 진평왕’을 王號가 아닌 實名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주목해볼 수 있다. 이는 편찬자가 특별히 어떤 사유를 명기하지 않은 한 매우 異例的인 표기방식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두 문헌이 서인-노론계의 저술로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시말해 그 학문성향에서 유학적 명분론 내지 정통론의 유산이 다른 당색보다 강고하게 잔존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왕을 臣僚인 장수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王名도 아닌 개인 성명을 사용해 표기¹⁷⁾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까닭을 ‘태종무열왕과 진평왕’의 두 인물 자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소론-남인, 특히 南人, 즉 嶺南勢力에 대한 서인-노론의 봉당적 인식의 반영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기본적으로는 고구려·백제의 인물 수요를 훨씬 뛰어넘는 신라 중심의 인물 구성을 통해 역사적 사실로서의 객관성을 확보하면서도, 영남 세력의 자긍심의 근거로 기능하였을 신라계통의 인물상에 대해서는 화이론적 명분론에 의거하여 매우 비판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을 듯하다.

이제 위와 같은 문헌해제적 분석을 바탕으로 인물 구성의 공통성과 차별성 및 그 선정 기준의 통일성·보편성 등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앞서 살펴본 네 종류의 문헌 즉 『해동명장전』·『대동장고』·『전고대방』·『문헌편고』에서 수록하고 있는 명장 구성의 내용을 시대순으로 재구성하여 하나의 총괄 대비표로 제시해보면, 다음의 <표 ②>와 같다.

17) 이를테면, ‘궁예·견훤’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는 국왕이었지만, 전통시대의 역사서술에서는 군주로 평가받지 못한 경우와 대비해볼 수 있다. 특히, 조선 중기이후로는 화이론적 예교의식이 이념화되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볼 수 있다. 다만, 그 구체적 실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고를 마련해볼 계획이다.

〈표 ②〉 문헌자료 수록 古代 名將 총괄 대비표

순번	인 명	해동명장전 (1794)	대동장고 (1817경)	전고대방 (1910년대)	문헌편고 (1923)	수 록 문헌수
1	부분노扶芬奴	○				1
2	사기斯紀			○	○	2
3	거칠부居柒夫			○	○	2
4	온달溫達			○	○	2
5	을지문덕乙支文德	○	○	○	○	4
6	김백정金伯淨(진평왕)			○	○	2
7	양만춘楊萬春	○	○	○	○	4
8	심나沈那	○	○			2
9	비령자丕寧子			○	○	2
10	김유신金庾信	○	○	○	○	4
11	계백階伯			○	○	2
12	김춘추金春秋			○	○	2
13	소나素那	○	○			2
14	임강수任強首(強首)			○	○	2
15	김인문金仁問			○	○	2
16	흑치상지黑齒常之	○	○			2
17	김암金巖			○	○	2
18	장보고張保臯	○	○			2
19	정년鄭年	○				1
소 계		9명	7명	13명	13명	

먼저, 위의 〈표 ②〉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위 4종의 문헌에서 수록하고 있는 인물의 총수는 중복된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19명이다. 이들 19명을 다시 수록 빈도, 즉 수록문헌수의 다과를 기준으로 재분류하면, 4종의 문헌에서 모두 수록하고 있는 인물은 ‘김유신·을지문덕·양만춘’ 등 세 명이고, 3종의 문헌에 수록된 인물은 한 명도 없다. 또 2종의 자료에서 수록하고 있는 인물은 ‘사기·거칠부·온달·김백정·심나·비령자·계백·김춘추·소나·임강수·김인문·흑치상지·김암·장보고’ 등 14명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1종의 문헌에서만 수록하고 있는 인물은 ‘부분노와 정년’ 등 2명이다. 이를 다시 의미 있는 분석치를 가질 수 있는 층차로 구분해본다면, 4종의 문헌에서 수록하고 있는 인물군과 2종 이하의 문헌에 등재된 인물군으로 분류할 수 있을 듯하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각 개별 인물의 수록 빈도의 편차에는 어떤 객관적 기준이 파악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앞서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기왕의 조선시대 명장 분석의 경우 일반적인 예상과 다르지 않게 그 수록 빈도의 다과에는 戰功·軍功의 대소 및 戰爭·戰鬪의 규모와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고대의 인물 구성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수록 빈도의 순위순으로 전공·군공을 제시하여 하나의 총괄 대비표를 작성해보면, 다음의 <표 ③>과 같다.

<표 ③> 고대 명장 戰功·軍功 총괄 대비표

순번	수록 문헌수	전공·군공/전쟁·전투	인 명	비고
1	4종	高隋전쟁 살수대첩	을지문덕	4
2		高唐전쟁 안시성전투	양만춘	4
3		신라 삼국통일 원훈	김유신	4
4		백제 근초고왕대 고구려정벌	사기	2
5	2종	신라 진흥왕대 영토확장	거칠부	2
6		고구려 평원왕대 奮戰殉國	온달	2
7		신라 3국통일 기반확립(수/당과 통교)	김백정(진평왕)	2
8		신라 선덕여왕대 羅濟전쟁 사성전투	심나	2
9		신라 진덕여왕대 나제전쟁 순국용장	비령자	2
10		나제전쟁 황산벌전투(총질)	계백	2
11		나당연합 결성 주역	김춘추(태종무열왕)	2
12		나당전쟁 아달성전투 분전순국	소나	2
13		신라 삼국통일전쟁 외교전담	임강수(강수)	2
14		태종무열왕 제2차/삼국통일전쟁 주역	김인문	2
15		백제 遺將/唐將으로 명성	흑치상지	2
16		통일신라 병법가/김유신 손자	김암	2
17		통일신라 완도청해진 창설	장보고	2
18		1종	주몽/유리왕대 행인국병합/선비족정벌	부분노
19	완도 청해진 경영		정년	1

위의 <표 ③>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수록 빈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들, 즉 4종의 문헌에 모두 등재된 인물인 ‘을지문덕·양만춘·김유신’ 등 3명은 오늘날에도 고대사를 대표하는 전쟁

영웅하면 떠올릴 수 있는 명장이듯이, 전공·군공의 대소나 전쟁·전투의 규모면에서 2종 이하의 문헌에서만 선정되고 있는 인물들과 뚜렷한 층차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4종의 문헌에서 수록하고 있는 인물들은 을지문덕이나 양만춘의 경우처럼 중국의 통일왕조인 隋나라와 唐나라의 국왕이 친정한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지휘관이거나, 김유신의 경우처럼 신라·고구려·백제의 3국이 世紀를 달리하며 치른 통일전쟁을 승리로 장식한 元勳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또한 전쟁의 배경이나 영향면에서 이들이 승전한 전투는 모두 당시 동북아에 중국 중심의 일원적 국제질서의 수립을 꿈꾸었던 통일제국인 수·당의 침입을 격퇴한 일대 대첩이었거나, 신라·고구려·백제가 명운을 걸고 대치했던 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전쟁이었다.¹⁸⁾

부연하여 말하자면, 을지문덕이 승전한 薩水大捷은 612년(영양왕 23) 1백만이 넘는 대군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침공하고도 3개월이 넘도록 遼河 유역의 遼東城을 함락시키지 못하자, 30만 5천명의 별동대를 조직하여 직접 평양성을 공격하게 했던 수나라 煬帝의 침입을 살수, 즉 오늘날의 청천강 유역에서 대파했던 전투였다. 또 양만춘이 대승을 거둔 안시성전투는 645년(보장왕 4) 당나라 太宗이 친정한 전투에서 88일간 唐軍의 총공세를 물리치고 고구려 정벌을 좌절시킨 일대 접전이었다. 김유신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한반도를 둘러싼 고대 3국의 패권전쟁 및 羅唐戰爭에서 최종 승리하여 통일신라의 성립에 가장 크게 기여한 명장으로서, 단지

18) 고구려의 對중국전쟁 및 삼국통일전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로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해당 항목을 들 수 있다. 항목별로는 「살수대첩」(서영대, 11권, p.27, 1989), 「麗隋戰爭」(노태돈, 15권, p.158, 1990), 「안시성전투」(서영대, 14권, p.502, 1990), 「麗唐戰爭」(노태돈, 15권, pp.102~103, 1990), 「삼국통일」(임병태, 11권, pp.290~294, 1989), 「김유신」(노명호, 4권, pp.799~800, 988) 등이다. 한편 한국 군사사 전반에 대한 최근의 종합적인 정리로는 『한국군사사』(개설~15권), 2012, 육군본부*가 참조된다.

3국을 통합하였다는 측면만이 아니라 이후 정립되는 ‘동국문화’를 건설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측면도 충분히 인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들 세 명의 명장 중에서도 단연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는 인물이 김유신인 까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⁹⁾

반면에 2종 이하의 문헌에서 수록되고 있는 인물들은 ‘거칠부·온달·김백정(진평왕)·계백·김춘추(태종무열왕)·임강수(강수)·김인문·흑치상지·장보고’ 등과 같이 전공이나 군공·행적 등이 잘 알려져 있는 인물도 있지만, ‘사기·심나·비령자·소나·김암’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는 그 이름조차 낯설은 인물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斯紀’와 같은 인물은 1종의 문헌에서만 수록된 ‘부분노’나 ‘정년’ 보다는 그 전공이나 군공이 뚜렷하지 않는 인물에 해당한다. 즉,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의 지문에서는 ‘智勇振世’라고 하고 있지만, 『해동명장전』이나 『三國史記』 列傳에서 그 행적은 백제 近肖古王 때 태자였던 近仇首王에게 고구려의 내부 정보를 알려 주고 향도 역할을 수행했던 사항만이 기술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그 군공·행적에서도 강수나 김암처럼 직접적으로 전쟁·전투와 연계되지 않는 인물도 있고, 흑치상지처럼 당나라에서 활동한 百濟의 遺民 將帥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등 다양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테면, 개별 인물의 문헌수록 빈도의 다과를 기준으로 그 특성을 살펴보면, 기왕의 조선시대의 명장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일반적으로 그 층차가 전공·군공의 대소나 전쟁·전투의 규모와 밀접한 연계성을 보여줄 것이라는 예상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끝으로, 이제 2종 이하의 문헌에만 수록되고 있는 인물들의 차별

19) 이를테면, 『해동명장전』(1911, 조선광문회 연활자본)의 경우 ‘을지문덕·양만춘’이 각각 ‘1면반·2면’ 정도의 지문으로 서술되고 있는데 대하여, ‘김유신’은 무려 ‘7면’에 걸쳐 서술하고 있다. 또한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에서도 김유신에 대한 설명은 을지문덕과 양만춘 두 사람에게 대한 지문을 합한 것보다 분량이 많다.

성을 검토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문성향이나 당색별 명장 인식의 차이점 등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하자. 앞서 문헌해제적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위 4종의 문헌은 각각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를 소론-남인계열의 명장전으로, 『전고대방』과 『문헌편고』를 서인-노론계의 명장록으로 규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다음의 <표 ④>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2종 이하 문헌의 수록 인물 중에서 위의 두 계통의 자료는 상호 교차적으로 중복되는 인물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만큼 명장 인식상의 차이도 뚜렷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앞선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2종 이하의 문헌에서만 수록되고 있는 인물들을 총괄하는 대비표를 작성해보면, 다음의 <표 ④>와 같다.

<표 ④> 2종 이하 수록 고대 명장 총괄 대비표

순번	인명	해동명장전 (1794)	대동장고 (1817경)	전고대방 (1910년대)	문헌편고 (1923)	수 록 문헌수
1	사기斯紀			○	○	2
2	거칠부居柒夫			○	○	2
3	온달溫達			○	○	2
4	김백정金伯淨(진평왕)			○	○	2
5	심나沈那	○	○			2
6	비령자조寧子			○	○	2
7	계백階伯			○	○	2
8	김춘추金春秋			○	○	2
9	소나素那	○	○			2
10	임강수任強首(強首)			○	○	2
11	김인문金仁問			○	○	2
12	흑치상지黑齒常之	○	○			2
13	김암金巖			○	○	2
14	장보고張保臯	○	○			2
15	부분노扶芬奴	○				1
16	정년鄭年	○				1
	소 계	6명	4명	10명	10명	

우선, 위의 <표 ④>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앞서 언급했듯이, 『해동명장전』·『대동장고』와 『전고대방』·『문헌편고』의 두 계통으로

구분되는 문헌 사이에 교차적으로 중복되어 수록된 인물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특히,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의 두 문헌은 등재 인물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고,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도 ‘부분노·정년’의 2명이 『해동명장전』에서만 더 선정되고 있는 점을 제외하면, 인물 구성이 동일하다. 즉, 중복되는 인물을 제외하면 모두 16명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6명은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에서만 등재되고 있는 인물이고, 나머지 10명은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에서만 선정되고 있다. 따라서 두 계통의 문헌 사이의 명장 인식에서도 뚜렷한 차별성이 파악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볼 수 있다.

먼저 『해동명장전』·『대동장고』와 『전고대방』·『문헌편고』의 두 계통의 문헌별 인물 구성의 면면을 살펴보면, 전자의 6명은 ‘부분노·심나·소나·흑치상지·장보고·정년’ 등이고, 후자의 10명은 ‘거칠부·사기·비령자·온달·김백정(진평왕)·김춘추(태종무열왕)·계백·임강수(강수)·김인문·김암’ 등으로 서로간에 전혀 교차되고 있는 인물이 없다. 한편 인물 구성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자의 경우 시기적으로 고대 3국의 건국기부터 통일신라 말기에 이르기까지 전시대적인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대체로 삼국통일전쟁기에 활약한 인물들로 제한되고 있다. 즉, 전자의 경우 고구려 건국기에 활약한 인물인 ‘부분노’에서부터 통일신라 말기의 인물인 ‘정년’에 이르기까지 고대시기 전반에 걸쳐서 인물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전체 10명 중에서 김유신의 손자로서 병법가로 활약한 ‘김암’을 제외하면 나머지 9명은 모두 ‘나제전쟁에서 나당전쟁에 이르는 3국통일전쟁’ 과정에서 활약한 인물들이다.

또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후자의 문헌, 즉 『전고대방』·『문헌편고』의 경우 국가별로는 신라 7명(총 8명)·고구려 1명(총 3명)·백제

2명(총 2명)으로 구성되어, 대체적으로 균형적인 인물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에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의 인물 구성은 신라 5명(총 6명)·고구려 0명(총 2명)·백제 1명(총 1명)으로 구성하고 있지만, 백제의 인물로 선정된 ‘흑치상지’의 경우 당나라에서 명성을 떨친 유민 장수임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백제의 인물로 볼 수만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그가 당나라로 망명하기 이전에는 백제 유민의 부흥운동을 진압하는데 기여한 주요 인물의 한 사람이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백제의 명장으로 1명만을 선정하면서 과연 손색없는 인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특히, 그 편찬자인 홍양호와 홍경모가 모두 당대의 석학이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계백’ 등 『삼국사기』 열전에 수록된 백제의 인물들에 대한 정보가 없었을 리도 만무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 특히 『해동명장전』의 명장 구성은 특정한 경향성이 개재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에 따라 『해동명장전』의 인물 구성을 좀 더 상세히 분석해보면, 삼국통일전쟁에서 신라의 장수로 활약한 ‘심나·소나’를 제외하면 대체로 대중국 관계에서 활약한 인물들로 구성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즉, ‘흑치상지·장보고·부분노·정년’ 등 나머지 4명은 직접 중국에서 활약한 유민장수이거나 대중국 전쟁 및 교역관계에서 명성을 떨친 인물들이다. 그런 측면에서 논의를 확대하여 보자면, 앞서 살펴본 4종의 문헌에서 모두 선정하고 있던 인물인 ‘을지문덕·양만춘·김유신’도 對隋·對唐戰爭 및 羅唐戰爭 등 對中國戰爭에서 맹활약했던 대표적 명장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해동명장전』에서 대중국 전쟁 및 교류관계에서 맹활약했던 인물들이 다수 선정된 것은 숙종 이후 전개되었던 일련의 영토 확정 및

군비 강화와 연관된 시대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즉, 숙종대에 있었던 울릉도 쟁계 및 백두산 정계 등 두 차례의 영토 확정 과정에서 소론-남인계는 매우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울릉도 쟁계 과정에서 소론의 영수였던 南九滿은 對日外交의 안정을 명분으로 안용복을 월경죄로 처형하려는 조정의 일반론에 대응하여, 안용복이 국가 차원에서 쉽게 해결하지 못했던 울릉도의 영유권과 어업권을 직접 일본에 건너가 해결한 것은 하나의 快事로 여겨야 함이 마땅함을 주장하여 유배형으로 감형을 이끌어냈다. 또한 당시 남인 실학의 종주였던 星湖 李瀾도 안용복을 영웅호걸로 칭송하여 마땅함을 주장하면서 그의 행적을 기록으로 남겨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²⁰⁾

이렇듯 당시 소론-남인계의 지도자들은 영토 및 국방 문제에 대해서 매우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해동명장전』의 편찬자로서 소론계의 대석학이었던 홍양호의 경우 북방 관련 활동과 관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일련의 대중국관계 문제와 인물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즉, 홍양호는 일찍이 경흥부사를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北塞記略』을 저술한 이래, 정조의 관북지역 개발을 뒷받침하여 『北道陵殿誌』·『興王肇乘』 등을 편찬하는 등 북방 문제에 많은 경험과 관심을 쏟고 있었다.²¹⁾ 따라서 자연스럽게 북방 개척이나 대중국관계에서 활약한 인물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재조명할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았을까 판단된다. 이를테면, 태조 이성계의 사적을 재건하면서 그와 함께 고락을 같이했던 李之蘭을 조선시대의 첫 번째 명장으로 새롭게 부각시켰듯이, 고구려 건국 초기의 인물인 ‘부분노’를 고대편 명장의 첫머리에 발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론해볼 만하다.

20) 졸저, 『한국 군사인물연구-조선편 I-』, 『평민어부 안용복』, pp.343~345 참조, 20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1) 졸고, 앞 논문, p.87.

이렇듯 『해동명장전』이나 『대동장고』에서는 편찬자인 홍양호와 홍경모가 봉당적 학문성향 및 관료생활의 경험에 바탕하면서 당대의 시대성에 부응하여 대중국관계에서 활약한 명장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면,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의 경우는 그 인물 선정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히 다각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인물 구성에서 신라 7명(총 8명)·고구려 1명(총 3명)·백제 2명(총 2명)으로 구성하여,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동명장전』의 인물 구성이 삼국통일전쟁 과정에서 활약한 인물로는 신라의 장수인 ‘심나·소나’만을 선정하고 있었던 반면에,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에서는 羅麗戰爭을 대표하는 고구려 장수로 새로이 ‘온달’ 1명을 수록하고, 羅濟戰爭을 대표하는 백제의 장수로서 ‘계백·사기’ 등 2명을 새롭게 등재함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동명장전』의 인물 구성이 뚜렷한 경향성을 보여주었던 것과는 달리,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에서는 단지 전쟁 영웅에만 국한하지 않고 ‘태종무열왕·김인문·강수’ 등과 같이 군사외교적 측면에서 활약한 인물 뿐만이 아니라, ‘김압’과 같이 병법가로 활약한 인물도 포함하는 등 다양한 인물 구성을 보여주는 것도 주목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렇듯 다각적이고 균형된 시각과 다양한 인물 구성을 전개한 裏面에는 전체의 인물 구성이 기본적으로 삼국간의 쟁패 및 통일과정의 인물들로 제한되고 있다든가, 진평왕과 태종무열왕을 왕호 대신 실명으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反南人的인 政派性を 드러내는 서인-노론계의 보수적 학문성향도 마땅히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인물 구성에서 살피지듯이 反老論的 政派性を 보이기는 『해동명장전』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의 인물 구성을 보다 다각적이고 균형적인 인물 선정의 결과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3. 高麗時代의 名將 구성과 그 특징

우선 앞서 살펴본 古代의 명장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위 4종의 문헌자료, 즉 『해동명장전』·『대동장고』·『전고대방』·『문헌편고』의 인물 구성을 중심으로 논리 전개의 필요상 최소한의 사항만을 문헌구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편찬시기가 앞서는 순서로 제시해 보면, 다음의 <표 ⑤>와 같다.

<표 ⑤> 분석대상 명장전·명장록 기본구성 대비표

문헌명칭 \ 항목구분	편찬시기	편수명	항목명	인물구성
해동명장전	1794년	권1~권4	海東名將傳 ²²⁾	22명
대동장고	1821년	제12책 별편	名將攷	24명
전고대방	1910년대	권2	名將錄	22명
문헌편고	1923년	해동명장록	海東名將錄	22명

위의 <표 ⑤>와 같이, 각 문헌의 편찬체제를 살펴보면 『해동명장전』은 6권 3책의 편목 중에서 ‘권1’부터 ‘권4’에 이르기까지 고려시대 인물을 수록하고 있는데, ‘권1’에서는 백제의 ‘흑치상지’에 뒤이어 ‘유금필·강감찬·양규·윤관’ 등 4명을 수록하고 있고, ‘권 2~3’은 온전히 고려시대 명장편에 해당하며, ‘권4’의 경우는 ‘최영’ 1인만이 고려시대의 명장이다. 『대동장고』는 모두 13책의 편차 중에서 제12책을 別篇과 外篇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명장록인 ‘명장고’는 그 중에서 별편의 제6번째 항목에 배정하고 있다. 『전고대방』은 4권 1책의 권수 중에서 ‘권2’의 제5번째 항목에서 ‘공신록’에 뒤이어 ‘명장록’을 편성하고 있다. 『문헌편고』는 1책으로 구성되어

22) 항목명이 없으므로, 책명으로 대체했다.

따로이 편수 구분은 없고 직접 항목명만을 설정하고 있는데, ‘해동명장록’은 모두 26항목 중에서 제6번째에 ‘湖堂故事 附清白吏錄’에 뒤이어 편차되고 있다.

각각의 문헌의 인물 구성은 『해동명장전』이 22명, 『대동장고』가 24명, 『문헌편고』와 『전고대방』은 똑같이 22명을 수록하고 있다. 각 문헌별로 인물 구성의 면면을 原典의 수록 순서대로 살펴보면, 『해동명장전』은 ‘庾黔弼·姜邯瓚·楊規·尹瓘·吳延寵·金富軾·趙冲·金就礪·朴犀·宋文胄·金慶孫·李子晟·金方慶·韓希愈·元冲甲·安祐·金得培·李芳實·鄭世雲·安遇慶·鄭地·崔瑩’ 등의 차례로 22명을 기술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동장고』에서는, ‘유금필·徐熙·강감찬·양규·智蔡文·윤관·오연충·김부식·조충·김취려·박서·김경손·이자성·김방경·한희유·원충갑·안우·김득배·이방실·정세운·안우경·최영·정지·崔雲海’ 등의 순서로 24명을 배열하고 있다.

『대동장고』의 인물 구성을 『해동명장전』과 비교해보면, 우선 전체 수록 인물 중에서 3명의 차이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유금필~윤관’의 사이에 ‘徐熙·智蔡文’이 추가되고 있다. 또 이후의 명단에서는 ‘박서’ 다음에 ‘송문주’가 탈락되는 대신에, ‘최영·정지’ 다음에 ‘崔雲海’가 새로이 등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듯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를 대비해보면 인물 구성에서 전체 延人員으로는 4명, 즉 ‘서희·지채문·송문주·최운해’ 등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총원에서 『대동장고』가 『해동명장전』의 22명 보다 2명이 많은 24명으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서희·지채문·최운해’ 중에서 2명을 추가 선정된 인원으로 본다면, 실제의 차이는 1명에 그치게 된다. 또한 인물의 수록 순서나 방식 등도 사실상 일치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앞서 고대의 명장편에서와 같이, 고려시대 명장의 인물구성에서도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는 동일

한 문헌으로 보아도 별반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두 문헌을 앞서 고대의 명장 분석에서와 같이, 학문성향이나 봉당적 측면에서 소론-남인계의 명장전으로 규정하는 데에도 별반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헌간 계통성은 앞서 고대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의 사이에서도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의 수록 인물을 살펴보면, 앞서 고대편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성 인원이나 수록 순서, 細註 형식의 略傳 내용이 모두 동일함을 살펴볼 수 있다. 즉, 『전고대방』에서 선정하고 있는 22명의 명단을 原典의 수록 순서별로 그 면면을 살펴보면, ‘申崇謙·유금필·양규·金樂·윤관·강감찬·오연충·康極·文冠·拓俊京·지채문·서희·김취려·김방경·조충·박서·김경손·김부식·정세운·한희유·안우·최영’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물 구성이 『문헌편고』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 배경으로는 앞서 고대 명장의 분석에서도 살펴봤듯이, 언뜻보자면 두 문헌의 간행 시기가 1924년과 1923년으로 1년밖에 차이 나지 않는 점을 주목해볼 수 있겠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학문성향이나 黨色上的 계통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즉,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를 소론-남인계의 명장전으로 재확인할 수 있었듯이, 『전고대방』과 『문헌편고』도 서인-노론계의 명장록으로 재규정할 수 있음이 고려시대의 명장 구성에서도 재확인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를테면, 기왕의 조선시대 명장 분석에서나 앞서 고대 명장편에서도 재차 확인되었듯이, 위 4종의 문헌을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를 하나의 계통, 즉 소론-남인계의 명장전으로 규정할 수 있고, 『전고대방』과 『문헌편고』를 또하나의 계통, 즉 서인-노론계의

명장록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그 인물 선정의 공통성이나 차별성 또는 그 선정 기준의 통일성·보편성 등에 대해서도 앞서 살펴본 것과 대동소이한 분석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 것이다. 다만, 고려시대의 경우 고대나 조선시대, 특히 조선시대와 대비하면 전 기간에 걸쳐 외침과 반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양상을 내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해동명장전』·『대동장고』·『전고대방』·『문헌편고』 등 각각의 문헌에서 수록하고 있는 명장 구성의 내용을 시대순으로 재구성하여 하나의 총괄 대비표로 제시해보면, 다음의 <표 ⑥>과 같다.

<표 ⑥> 문헌자료 수록 高麗時代 名將 총괄 대비표

순번	인 명	해동명장전 (1794)	대동장고 (1817경)	전고대방 (1910년대)	문헌편고 (1923)	수 록 문헌수
1	신송겸 申崇謙			○	○	2
2	김락 金樂			○	○	2
3	유금필 庾黔弼	○	○	○	○	4
4	서희 徐熙		○	○	○	3
5	양규 楊規	○	○	○	○	4
6	지채문 智蔡文		○	○	○	3
7	강감찬 姜邯贊	○	○	○	○	4
8	윤관 尹瓘	○	○	○	○	4
9	오연총 吳延寵	○	○	○	○	4
10	문관 文冠			○	○	2
11	강극 康極			○	○	2
12	척준경 拓俊京			○	○	2
13	김부식 金富軾	○	○	○	○	4
14	조충 趙冲	○	○	○	○	4
15	김취려 金就礪	○	○	○	○	4
16	박서 朴犀	○	○	○	○	4
17	송문주 宋文胄	○				1
18	김경손 金慶孫	○	○	○	○	4
19	이자성 李子晟	○	○			2

20	김방경金方慶	○	○	○	○	4
21	원충갑元冲甲	○	○			2
22	한희유韓希愈	○	○	○	○	4
23	정세운鄭世雲	○	○	○	○	4
24	김득배金得(得)培 ²³⁾	○	○			2
25	안우安祐	○	○	○	○	4
26	이방실李芳實	○	○			2
27	안우경安遇慶	○	○			2
28	최영崔瑩	○	○	○	○	4
29	정지鄭地	○	○			2
30	최운해崔雲海		○			1
소 계		22명	24명	22명	22명	

먼저, 각각의 문헌별로 인물 구성을 살펴보면, 『해동명장전』이 22명, 『대동장고』가 24명, 『전고대방』이 22명, 『문헌편고』가 마찬가지로 22명이다. 이를 다시 중복된 인물을 제외하면 모두 30명으로 집계된다. 이제 이 30명을 대상으로 수록 빈도, 즉 수록문헌수의 비교 우위 등을 바탕으로 인물 선정의 객관성·보편성 등의 검토해볼 순서이다. 먼저 4종의 문헌에서 모두 수록하고 있는 인물을 살펴보면 ‘유금필·양규·강감찬·윤관·오연총·김부식·조충·김취려·박서·김경손·김방경·한희유·정세운·안우·최영’ 등 모두 15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체 수록 인물 총 30명의 과반수, 즉 50%에 해당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일치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앞서 살펴본 고대 명장 구성의 경우 전체 인원 19명 중에서 3명, 즉 약 16%, 기왕의 조선시대 명장 구성의 경우는 총 49명 중에서 5명,²⁴⁾ 즉 10% 정도의 일치율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만한 수치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다만, 그 숫자가 많은 탓인지는 몰라도 위의 15명 가운데 ‘유금필

23) 『해동명장전』에서는 ‘金得培’로 표기하고 있는데, 『대동장고』에서는 ‘金得培’로 표기하였다.

24) 줄고, 앞 논문, p.101.

· 양규 · 강감찬 · 윤관 · 오연충 · 김부식 · 조충 · 김취려 · 박서 · 김방경 · 정세운 · 최영 등 12명은 대체로 그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반면에, ‘김경손 · 한희유 · 안우’ 등과 같이 그 이름이 다소 생소한 인물들도 없지 않음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 3종의 문헌에서 수록하고 있는 인물을 살펴보면, 앞서 4종의 문헌에서 모두 수록된 인물이 전체의 과반을 차지했던 탓인지는 몰라도 ‘서희 · 지채문’의 2명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이들 두 명은 『해동명장전』에서는 선정된 바 없다가 『대동장고』에서 처음 수록된 이후 계속해서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에서도 선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두 계통의 명장 구성, 즉 소론-남인계와 서인-노론계로 구분되는 명장 인식의 공통성을 확인해볼 수 있는 계기적 사례로 판단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런데 두 사람이 『대동장고』에서 처음 선정된 이후 당색을 달리 하는 두 문헌, 즉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에서도 지속적으로 수록된 까닭은 기본적으로 그 전공 · 군공이 재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서희는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麗遙1次戰爭에서 탁월한 외교능력을 발휘한 이후에는 전투지휘관으로서도 뚜렷한 전공을 쌓았으며, 지채문도 서경전투 및 顯宗을 호종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공헌을 세웠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2종 이하의 문헌에서 선정되고 있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먼저 2종의 문헌에 수록된 인물들은 ‘신승겸 · 김락 · 문관 · 강극 · 척준경 · 이자성 · 원충갑 · 김득배 · 이방실 · 안우경 · 정지’ 등 11명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이자성 · 원충갑 · 김득배 · 이방실 · 안우경 · 정지’ 등 6명은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에 수록된 인물이고, 나머지 5명, 즉 ‘신승겸 · 김락 · 문관 · 강극 · 척준경’ 등은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에서만 선정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즉, 위의 4종의 문헌에서 당색을 달리하는 두 계통의 문헌에

서로 교차적으로 수록되고 있는 인물이 전혀 없음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에서 선정되고 있는 5명이 모두 고려 전기의 인물들인 반면에,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에서 수록하고 있는 6명은 모두 고려 후기에 해당하는 인물들이라는 차이 점도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1종의 문헌에서만 선정하고 있는 인물은 ‘송문주·최운해’ 등 2명이다. 이들 두 명, 특히 송문주의 경우 그 명성이 없지 않았음에도 각각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에서 한 차례씩 선정되고 있을 뿐인데, 최운해의 경우는 고려말 뿐만 아니라 조선 초기까지 활약한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송문주의 경우는 ‘박서’에 부록 인물로 기술되었던 까닭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²⁵⁾

한편 위의 총 30명의 고려시대 명장들은 시기적으로는 고려 건국기에 활약한 인물부터 고려 말 또는 조선 초기에 활약한 인물까지 전 시대에 걸쳐 고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앞서 살펴보았듯이, 2종 이하의 문헌에서만 선정된 13명의 경우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에서 수록하고 있는 8명이 모두 고려 후기의 인물인 반면에,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에서 수록하고 있는 5명은 모두 고려 전기의 인물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²⁶⁾

그러면 이제 이러한 기초적 분석들이 갖는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개별 인물의 수록 빈도가 우위를 차지하는 순으로 그 전공·군공을 포함하여 하나의 총괄표로 제시해보면, 다음의 <표 ⑦>과 같다.

25) 『해동명장전』에서 ‘부록 인물’로 수록된 인물 중에서 『대동장고』에서 탈락된 인물은 고대의 경우는 ‘정년·소나’ 중에 ‘정년’ 1명, 고려시대의 경우는 ‘송문주·김득배·이방실’ 3명 중에 ‘송문주’ 1명, 조선시대의 경우는 ‘유정·영규·김응해·유형’ 4명 중에 ‘김응해·유형’의 2명이다.

26) 이에 따라 의도적이었던 그렇지 않은 간에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자면, 고려시대에 활약한 명장들을 서로 시기를 달리하면서 상호 보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표 ①〉 고려시대 명장 전공·군공 총괄 대비표

순번	수록문헌수	전공·군공/전쟁·전투	인명	수록문헌수	
1	4종	후삼국통일전쟁(전공)	유급필	4	
2		여요1차전쟁(분투전사)	양규	4	
3		여요전쟁 귀주대첩	강감찬	4	
4		동북9성개척(원수)	윤관	4	
5		동북9성개척(부원수)	오연총	4	
6		묘청반란진압	김부식	4	
7		고종대 거란격퇴	조충	4	
8		고종대 거란격퇴	김취려	4	
9		여몽전쟁 귀주전투	박서	4	
10		여몽전쟁/이연년반란진압	김경손	4	
11		삼별초진압/일본정벌	김방경	4	
12		일본정벌/합단격퇴	한희유	4	
13		기철주살/홍건적격퇴	정세운	4	
14		기철주살/홍건적격퇴	안우	4	
15		홍건적격퇴/홍산대첩	최영	4	
16	3종	군사외교/영토확장	서희	3	
17		여요2차전쟁(현종 호종)	지채문	3	
18	2종	후삼국통일전쟁(총절)	신승겸	2	
19			김락	2	
20		여진정벌(윤관/오연총)	문관	2	
21		여진정벌(윤관/오연총)	강극	2	
22		이자겸반란진압	척준경	2	
23		여몽전쟁/이통반란진압	이자성	2	
24		합단격퇴 원주전투	원충갑	2	
25		홍건적 격퇴	김득배	2	
26		홍건적 격퇴	이방실	2	
27		홍건적격퇴/김용반란진압	안우경	2	
28		왜구격퇴 관음포대첩	정지	2	
29		1종	여몽전쟁 죽주전투	송문주	1
30			왜구 격퇴	최운해	1

앞서 고대편의 명장 분석이나 기왕의 조선시대 명장 인식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던, 수록 빈도의 우열은 일반적 예상과 다르지 않게 戰功·軍功의 대소 및 戰爭·戰鬪의 규모와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고려시대의 명장 구성

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의 <표 ⑦>에서 드러나듯이, 4종 또는 3종의 문헌에서 수록되고 있는 인물들은 2종 이하의 문헌에서 수록되고 있는 인물들과 충분히 층차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만, 고려시대의 경우 전 시기에 걸쳐 외침과 반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명장 구성에서도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면서 동일한 전쟁·전투에 인물들이 중복적으로 선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일부 인물의 경우는 그 전공이나 군공이 충분히 평가되지 못한 인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고려말 왜구 격퇴과정에서 활약한 인물 중에서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에서만 수록하고 있는 ‘정지’와 같은 경우는 정치적 지위를 배제하면 4종의 문헌에서 모두 선정되고 있던 ‘최영’과 비교해도 전공 자체로만은 크게 뒤지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다.

또다른 인물을 들어보자면, 高宗代 蒙古 침입을 격퇴하고 李延年의 반란군을 진압하는 전공을 세웠던 ‘金慶孫’이라든가, 삼별초 진압·일본 정벌·합단 격퇴 등에서 맹활약했지만 상대적으로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인 ‘韓希愈’ 등과 비교할 경우는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다. 더욱이 麗蒙戰爭 과정에서 서북면병마사 朴犀 휘하에서 龜州戰鬪를 승리로 이끌고 뒤이어 竹州戰鬪에서 승전하였던 ‘宋文胄’와 같은 경우는 『해동명장전』에서만 명장으로 선정되기에는 그 전공·군공을 충분히 평가받지 못한 측명도 있다고 생각해볼 만한 듯하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4종 또는 3종 이상의 문헌에서 선정되고 있는 인물들과 2종 이하의 문헌에서 등재되고 있는 인물들 사이에는 전공·군공의 대소 및 전쟁·전투의 규모를 연계해볼 때 일정한 층차를 확인해볼 수 있다. 특히, 오늘날의 인물 평가와 전근대 왕조시대의 인물 평가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음도 고려되어야 할 듯하다. 예를 들자면, 고려 건국기에 활약한 인물 중에서 4종의

문헌에서 모두 수록하고 있는 ‘庾黔彌’과 2종의 문헌에서만 선정된 ‘申崇謙·金樂’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세 사람 모두 당대를 대표하는 명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특히 ‘신승겸’의 경우는 어떤 측면에서는 ‘유금필’보다 그 명성이 더욱 잘 알려져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전공·군공 자체만으로는 ‘유금필’과 뚜렷한 차이가 있음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유금필’이 고려의 후삼국통일전쟁 과정에서, 특히 후백제와의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쌓은 장수였다면, ‘신승겸·김락’은 전공도 뛰어났지만 927년(태조 10) 大邱 公山戰鬪에서 위기에 빠진 太祖 王建을 구출하고 전사한 ‘忠節’로써 더욱 현창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²⁷⁾ 또다른 사례를 보자면, 예종대 여진 정벌 및 동북9성 개척 과정에서 활약한 인물로서 4종의 문헌에서 모두 선정하고 있는 ‘尹瓘·吳延寵’과 2종의 문헌에서만 선정된 ‘文冠·康極’의 경우를 비교해볼 수 있을 듯하다. 위의 네 명의 장수 모두 여진 정벌 및 동북9성 개척 과정에서 뛰어난 전공을 쌓았지만, 윤관과 오연충이 ‘각각 원수와 부원수’로서 전쟁·전투를 주도했다면, 문관과 강극은 그 휘하의 ‘좌군병마사’ 또는 ‘병마판관’으로 활약하였다. 즉,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공·군공 및 전쟁·전투 자체와 연계해보면 4종의 문헌에서 선정하고 있는 인물들과 2종의 문헌에서만 수록된 인물들 사이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음이 충분히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 활약한 인물의 행적과 관련해서는 앞서 4종의 문헌이 편찬되기까지 나름대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 수

27) ‘신승겸’에 대한 주요 연구로는 다음의 논고가 참조된다.

- ① 민병하, 「신승겸과 공산동수 전투」, 『군사』 29, 1994, 국방군사연구소.
- ② 이학주, 「신승겸 설화의 영웅적 형상화 연구」, 『강원민속학』 20, 2006, 강원도민속학회.
- ③ 이재범, 「신승겸의 생애와 사후 추승」, 『사림』 44, 2013, 수선사학회.

있는 측면이 있다. 특히, 현전하는 자료와 연계하여 추론해본다면, 조선의 건국 전후부터 이루어진 고려시대사에 대한 정리 작업에 주목해볼 수 있을 듯하다. 즉, 조선왕조는 전대사의 교훈과 새로운 왕조 개창의 정당성을 선양하기 위하여 건국 직후부터 고려시대사의 편찬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결과 많은 진통과 노력 끝에 1451년(문종 1)에 기전체 정사로 『高麗史』, 1452년(문종 2) 편년체로 『高麗史節要』가 편찬되었다. 뒤이어 1476년(성종 6) 삼국시대사로서 『三國史節要』를 완성하고, 이러한 일련의 성과들을 모아 1486년에는 『東國通鑑』을 편찬했다.

이로써 조선왕조로서는 일단 역대 왕조에 대한 일련의 평가 작업을 마무리한 셈으로서, 이 과정에서 당대에 활동했던 수많은 인물들에 대한 평가도 어느 정도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전체 사서인 『고려사』의 편찬에 많은 시간과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은 ‘本紀-世家-列傳’으로 이어지는 특유의 위계적 인물 평가의 고뇌가 개재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²⁸⁾ 따라서 이 과정에서 고려시대에 전반에 걸쳐 외침과 반란을 극복해낸 주요 장수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층차를 이루는 평가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2종 이하의 문헌에만 수록되고 있는 인물들의 차별성을 검토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문성향이나 당색별 명장 인식의 차이점 등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다음의 <표 ⑧>

28) 『고려사』 및 『고려사절요』의 인물 평가에 대한 주요 연구로는 다음의 논고가 참조된다.

- ① 김난옥, 「『고려사절요』 卒記의 기재방식과 성격」, 『한국사학보』 48, 2012, 고려사학회.
- ② 윤훈표, 「조선조의 《고려사》 열전 정리를 통해 본 역사 바로 세우기」, 『동방학지』 171, 2015, 연세대 국학연구원.
- ③ 강문식, 「조선 초기 지식인들의 고려시대 인식 :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나라경제』 143, 2015, 한국개발연구원.

에서 볼 수 있듯이, 2종 이하 문헌의 수록 인물 중에서 위의 두 계통의 자료는 전혀 중복되는 인물들이 없다는 점에서, 그만큼 명장 인식에도 분명한 차이점이 개재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앞선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인물에 대해 총괄적인 대비표를 제시해보면, 다음의 <표 ⑧>과 같다.

<표 ⑧> 2종 이하 수록 고려시대 명장 총괄 대비표

순번	인 명	해동명장전 (1794)	대동장고 (1817경)	전고대방 (1910년대)	문헌편고 (1923)	수 록 문헌수
1	신승겸			○	○	2
2	김락			○	○	2
3	문관			○	○	2
4	강극			○	○	2
5	척준경			○	○	2
6	이자성	○	○			2
7	원충갑	○	○			2
8	김득배	○	○			2
9	이방실	○	○			2
10	안우경	○	○			2
11	정지	○	○			2
12	송문주	○				1
13	최운해		○			1
소 계		7명	7명	5명	5명	

먼저, 위의 <표 ⑧>을 통해 볼 수 있듯이, 2종의 문헌에서 선정되고 있는 인물들의 전체 면면은 ‘신승겸·김락·문관·강극·척준경·이자성·원충갑·김득배·이방실·안우경·정지’ 등 11명이다. 이들 가운데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에 수록된 인물은 ‘이자성·원충갑·김득배·이방실·안우경·정지’ 등 6명이고,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에 선정된 인물들은 ‘신승겸·김락·문관·강극·척준경’ 등 5명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위의 두 계통의 문헌, 즉 소론-남입계의 명장전으로 규정했던 『해동명장전』·『대동장고』와 서인-노론계의 명장록으로 규정했던 『전고대방』·『문헌편고』의

인물 구성에는 전혀 연계성이 없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즉, 서로 당색을 달리하는 두 계통의 문헌에서 교차적으로 선정하고 있는 인물이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1종의 문헌에서만 수록된 인물로서는 ‘송문주’와 ‘최운해’를 각각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에서 선정하고 있다.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에서 선정하고 있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이자성·원충갑·김득배·이방실·안우경·정지’ 등 6명 모두 외침에 대응하여 전투지휘관으로 활약한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은 우연인지는 몰라도 시기적으로 몽고 침입 이후부터 고려말의 왜구 격퇴 과정에서 활약했던 전투 지휘관으로 구성되고 있다. 李子晟과 元冲甲은 蒙古의 强盛 및 그 여파에 따른 哈丹의 침입을 격퇴하는데 맹활약했던 인물들이고, 金得培와 李芳實은 紅巾賊 격퇴에 공헌한 장수들이다. 또 安遇慶과 鄭地도 각각 고려말의 흥건적 및 倭寇 격퇴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인물들이다. 또한 각각 1종의 문헌에 수록되고 있는 宋文胄나 崔運海는 물론, 『대동장고』에서 처음 선정되어 이후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에서도 연속적으로 수록되었던 ‘徐熙·智蔡文’도 모두 전투 지휘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서희의 경우 외교전략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麗遙1次戰爭에서의 외교 담판 이후 전투지휘관으로서도 탁월한 전공을 쌓았던 인물이다. 따라서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의 명장 구성은 4종·3종의 문헌에 선정되고 있던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탁월한 전공·군공을 세웠던 전투지휘관을 명장으로 선정하고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동장고』에서 『해동명장전』에 선정된 ‘송문주’를 대신해서 ‘최운해’를 선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해동명장전』에서와 같이 北方 問題에 대한 관심뿐만이 아니라, 순조대 이후 고조되고 있던 異樣船 출몰에 따른 위기의식이 일정하게

반영된 측면이 아닌가 추정해볼 수 있을 듯하다.

반면에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에서 수록하고 있는 ‘신승겸·김락·문관·강극·척준경’ 등 5명은 그 인적 구성이 일률적이지 않음을 살펴볼 수 있다. 즉, 申崇謙과 金樂이 무공도 뛰어났지만 예종이 두 사람을 기려 ‘悼二將歌’를 지었듯이 태조 왕건을 구출하고 대신 순국했던 ‘忠節’의 상징으로 더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면, 文冠과 康極은 전형적인 전투지휘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또 拓俊京은 반란을 진압하여 王室을 보호한 인물에 해당된다. 이를테면, 전투지휘관이면서도 국왕을 위해 전사하거나 왕실을 보호했던 인물에도 일정한 배려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고대편의 명장 구성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듯이,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의 인물 구성은 『해동명장전』·『대동장고』에 서와 같이 직접 전쟁·전투에 참여한 지휘관 뿐만이 아니라, 보다 다각적이고 균형적인 명장의 구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을 듯하다.

4. 맺음말

이상으로 기왕에 조선시대 명장 연구에서 활용한 바 있던 4종의 고문헌, 즉 『海東名將傳』(홍양호, 1794년)·『大東掌攷』(홍경모, 1821년경)·『典故大方』(강효석, 1910년대)·『文獻便考』(이장훈, 1923년) 등에 수록된 고대·고려시대 명장의 구성 및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그 바탕 위에서 오늘날 명장 선정의 객관적 근거자료로서 활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구체적인 논의는 기왕의 조선시대 명장 연구에 서와 마찬가지로 먼저 위 4종의 문헌자료에 수록된 인물들에 대해

전체적인 총괄 대비표를 작성한 다음, 그 대비표에 바탕하여 개별 인물의 수록 빈도, 문헌간 계통성 여부 및 수록 인물의 특성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대·고려시대의 명장 분석에서도 기왕의 조선시대 명장 연구에서 검출되었던 것과 동일한 특징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위 4종의 고문헌, 즉 『해동명장전』·『대동장고』·『전고대방』·『문헌편고』의 수록 인물은 고대의 경우 각각 9명·7명·13명·13명이었으며, 중복된 인물을 제외하면 모두 19명이었다. 특히, 『전고대방』과 『문헌편고』는 인원수뿐만이 아니라 인물 구성도 동일하였다. 고려시대의 명장은 각각 22명·24명·22명·22명이 수록되었으며, 중복된 인물을 제외하면 모두 30명이었는데, 『전고대방』과 『문헌편고』의 경우는 또다시 인원수뿐만이 아니라 인물 구성이 동일하였다. 그런데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의 인물 구성도 그 편차가 각각 1명과 2명의 차이에 불과하여 사실상 인물 구성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위 4종의 문헌은 『전고대방』과 『문헌편고』를 하나의 동일 계통으로, 그리고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가 또 하나의 동일 계통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기왕의 조선시대 명장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계통으로 분류되는 문헌별 계통성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위 4종의 문헌 또는 두 계통의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수록하고 있는 인물을 살펴보면 우선 4종의 문헌에서 모두 선정하고 있는 인물은 고대의 경우 ‘김유신·을지문덕·양만춘’ 등 3명이었고, 고려시대는 ‘유금필·양규·강감찬·윤관·오연총·김부식·조충·김취려·박서·김경손·김방경·한희유·정세운·안우·최영’ 등 모두 15명으로 전체 인원의 과반수에 달했다. 또 두 계통의 문헌, 즉 3종의 문헌에서 선정하고 있는 인물로는 고려시대만 ‘서희·지채문’ 등 2명이었다. 종합하면, 3종 이상의 문헌에 수록된 인물의 총수는 고대가 3명(16%), 고려시대가 무려 17명(57%)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고대사를 대표하는 전쟁인 3국통일 전쟁 및 對隨·對唐戰爭에서 대첩을 거둔 인물이거나, 고려시대의 경우 후삼국통일전쟁, 거란·몽고·홍건적·왜구 격퇴 등에서 대승을 거둔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전공·군공이 뚜렷하거나 전쟁·전투의 규모가 클수록 시대나 정파 등을 초월하여 공통적으로 선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명장 분석에서 검출되었던 특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두 계통으로 구분되는 『해동명장전』·『대동장고』와 『전고대방』·『문헌편고』에서 별개로 수록되고 있는 인물은 고대의 경우 전자가 ‘부분노·심나·소나·흑치상지·장보고·정년’ 등 6명이었고, 후자는 ‘거칠부·사기·비령자·온달·김백정(진평왕)·김춘추(태종무열왕)·계백·임강수(강수)·김인문·김암’ 등 10명이었다. 또 고려시대의 경우는 전자가 ‘이자성·원충갑·김득배·이방실·안우경·정지·송문주·최운해’ 등 8명이었고, 후자는 ‘신승겸·김락·문관·강극·척준경’ 등 5명으로서 두 계통의 문헌간에는 상호 교차적으로 수록된 인물이 전혀 없었다.

전자의 경우 모두 직접 전투를 지휘한 장수들이면서 대중국 관계에서 활약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특징을 보여주는 반면에, 후자의 인물들은 전쟁·전투를 지휘한 인물뿐만 아니라 총절이나 왕권 보호 및 외교가, 군사전략가로 활동한 인물 등 다양한 구성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두 계통의 문헌에서 2종 이하의 문헌에 수록된 인물들간에 전혀 교차성이 없는 까닭으로는 시대와 정파의 제약성, 즉, 기왕의 조선시대 명장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를 소론-남인계열의 명장전으로, 『전고대방』과 『문헌편고』가 서인-노론계통의 명장록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추론해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는, 『해동명장전』·『대동장고』·『전고대방』·『문헌편

고』 등 역대의 명장전 내지 명장록도 4종·3종의 문헌에 수록된 인물들에서는 전공·군공의 대소 및 전쟁·전투의 규모와 밀접한 연관성을 기대하는 일반적 예상과 일치하였던 반면에, 두 계통으로 구분되는 2종 이하의 문헌에 수록된 인물들간에는 전혀 상호 교차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시대의식을 반영하는 역사적 사례에 불과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던 셈이다. 따라서 전쟁사·군사사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에 바탕하여 고대·고려시대의 명장을 선정하는 문제 또한 오늘날 군사사 연구자들의 몫임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원고투고일: 2016.1.10, 심사수정일: 2016.2.18, 게재확정일: 2016.2.19.]

주제어 : 고문헌 자료, 역사적 방법론, 고대 명장, 고려시대 명장, 『해동명장전』, 『대동장고』, 『전고대방』, 『문헌편고』, 소론-남인계열 명장전, 서인-노론 계열 명장록

<ABSTRACT>

Renowned generals of Ancient & Goryeo era in old literatures

Jeon, Ho-soo

The following study aims how 4 old literatures, 『Haedongmyeongjangjeon』 (Hong Yang-ho, 1794)·『Daedongjanggo』 (Hong Gyeong-mo, ca. 1821)·『Jeongodaebang』(Kang Hyo-seok, ca. 1910)·『Munheonpyeongo』 (Lee Jang-hun, 1923) handle the generals from Ancient to Goryeo era in figure composition and character. Upon a rating table showing included figures in each literature it reviews figure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 in included frequency.

First, the 4 old literature, 『Haedongmyeongjangjeon』·『Daedongjanggo』·『Jeongodaebang』·『Munheonpyeongo』 contain respectively 9·7·13·13 generals from Ancient era and it is all 19 persons except repeated figures. For the Goryeo era each book contains respectively 22·24·22·22 figures and it is all 30 except repeated. With the 2(Goryeo) or 1(Ancient) differential of the included figures 『Hae dongmyeongjangjeon』 & 『Daedongjanggo』 can be seen as the same.

As the result 4 literatures are to divided two different political position : 『Munheonpyeongo』 & 『Jeongodaebang』 incline to the Soron-Namin(少論-南人), whereas 『Haedongmyeongjangjeon』 & 『Daedongjanggo』 to the Sein-Noron(西人-老論).

Second, the figures who in all 4 literatures described are for the Ancient era 3, namely 'Kim Yu-sin·Eulji Mundeok·Yang Man-chun' and for the Goryeo era 15, that are Yu Geum-pil·Yang Gyu·Gang Gam-chan·Yun Gwan·O Yeon-chong·Kim Bu-sik·Jo Chung·Kim Chwi-ryeo·Pak Seo·Kim Gyeong-son·Kim Bang-gyeong·Han Hui-yu·Jeong Se-un·An U·Choe Yeong'.

The figures noted for Goryeo era in 3 literatures are just 2 people : Seo Hui and Ji Chae-mun'. As the Ancient figures 『Haedongmyeongjangjeon』 & 『Daedongjanggo』 refer 6 persons from Ancient era : 'Bubunno · Simna · Sona · Heukchi Sang-ji · Jang Bo-go · Jeong Nyeon' while 『Jeongodaebang』 & 『Munheonpyeongo』 mention 10 : 'Geochilbu · Sagi · Biryongja · Ondal · Kim Baek-jeong(King Jinpyeong) · Kim Chun-chu(King Taejong Muyeol) · Gyebaek · Im Gangsu(強首) · Kim In-mun · Kim Am'. For the Goryeo era 『Haedongmyeongjangjeon』 & 『Daedongjanggo』 include 8 persons : 'Lee Ja-seong · Won Chung-gap · Kim deuk-bae · Lee Bang-sil · An U-kyeong · Jeong Ji · Song Mun-ju · Choe Un-hae', whereas 『Jeongodaebang』 & 『Munheonpyeongo』 5 : 'Sin Sung-kyeom · Kim Rak · Mun Gwan · Gang Geuk · Cheok Jun-gyeong'. The figure from Ancient era 'Bubunno · Jeong Nyeon' and from Goryeo era 'song Mun-ju · Choe Un-hae' are just mentioned in 1 literature.

The figures who are included in all 4 literature won the unified war of Three Kingdoms in Ancient period or fought in the Later Three Kingdoms and war against foreign powers as well in Goryeo era in common. The general expectation that these people have a lot to do with outstanding achievement in a battle matches up well.

To conclude, it is reconfirmed then again in this study that the general literature of all time such as 『Haedongmyeongjangjeon』 reflect nothing else than the awareness of time. It is therefore the task of the present-day Military Historian to select the generals of the Ancient to Goryeo era upon synthetic and systematic discussion covered War and Military history.

Key words : old literatures, historical method, renowned generals in Ancient era
 renowned generals in Goryeo era, 『Haedongmyeongjangjeon』
 『Daedongjanggo』, 『Jeongodaebang』, 『Munheonpyeongo』
 Secin-Noron factional renowned generals who's who
 Soron-Namin factional renowned generals literature

